

노동시장 동향

경제일반

◆ 생산·소비·투자 전 분야에서 증가

- 2005년 7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7.0%, 6.5% 증가하였고, 도·소매판매는 2.9% 증가, 투자는 4.7% 증가하였음.
 - 7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23.3%), 자동차(20.8%), 영상음향통신(10.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0% 증가, 전월대비 1.3% 증가하였음. 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컴퓨터 및 전자기기 등에 대한 투자증가로 4.7% 증가(표 1 참조).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의료업 등에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서비스업 생산은 2002년 12월(6.5%) 이후 31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그림 2 참조).
 - 도·소매판매는 도매업(2.1%), 소매업(2.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소매(8.3%) 모두 증가하여 2.9% 증가하였음.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향후의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3%로 전월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하였음(그림 3 참조).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7월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p	7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1.2	6.1	3.1	3.0	7.7	11.3	12.7	13.5	11.4	6.7	3.8	4.0	7.0
	제조업 생산	11.2	5.7	2.9	3.0	8.0	11.9	13.2	13.7	11.6	7.0	3.5	3.9	7.2
	출하	10.8	4.4	2.8	2.5	6.7	10.0	10.8	12.4	10.1	5.8	3.5	3.5	6.5
	수출	12.2	7.3	9.9	11.2	17.6	21.9	23.4	21.9	20.4	15.0	10.9	6.7	6.2
	내수	10.0	2.8	-0.7	-2.1	0.9	3.7	3.8	6.8	4.1	0.3	-1.2	1.4	6.6
	서비스업 생산	8.0	1.9	0.9	0.5	0.6	2.1	0.9	-0.6	-0.5	-0.2	0.7	2.4	4.2
소비	도소매 판매	7.1	1.7	-1.5	-2.3	-2.0	-0.2	-0.6	-0.3	-1.1	-1.4	-1.0	2.7	2.9
투자	설비투자	13.8	2.6	0.2	-6.4	-5.3	-2.0	3.2	4.0	3.8	0.1	4.0	1.5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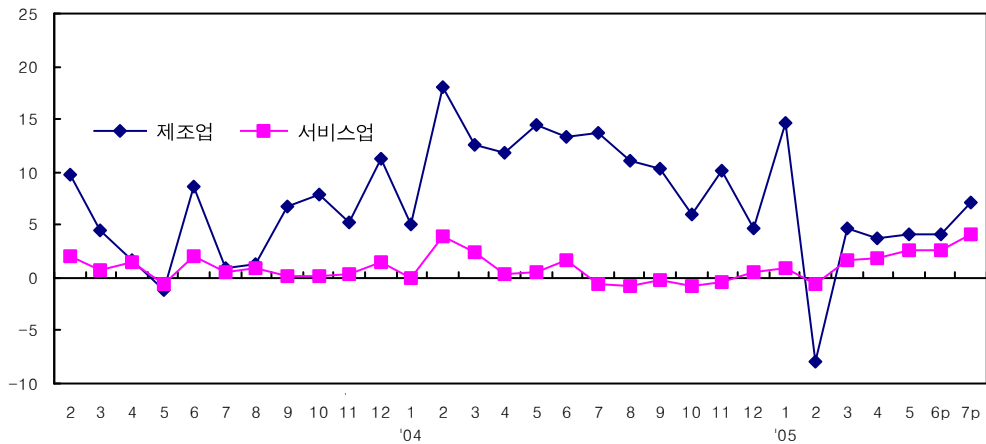
주: p는 잠정치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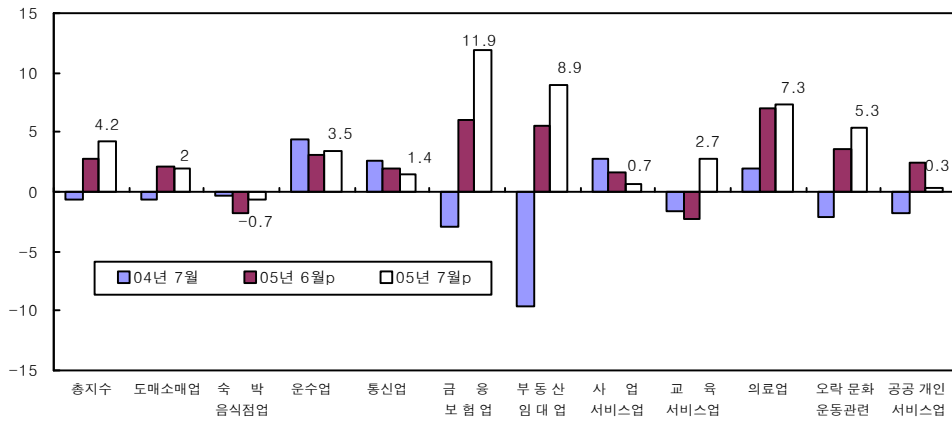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5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05. 8.
 _____, 『2005년 7월 서비스업활동동향』, 2005. 9.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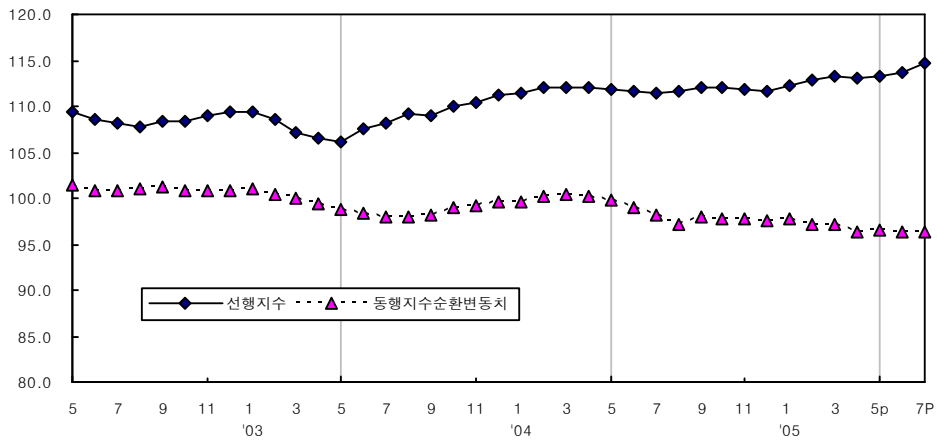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단위 : 200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증가

- 2005년 8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68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0천명(2.0%)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3,881천명으로 241천명(1.8%)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9,808천명으로 219천명(2.3%) 증가함.
- 2005년 8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74.3%)이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49.7%)은 0.4%포인트 상승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5년 4월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임(그림 4 참조).
- 2005년 8월 중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증가
 - 남성의 고용률은 71.4%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48.2%로 0.5%포인트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고용률 역시 증가세가 지속됨.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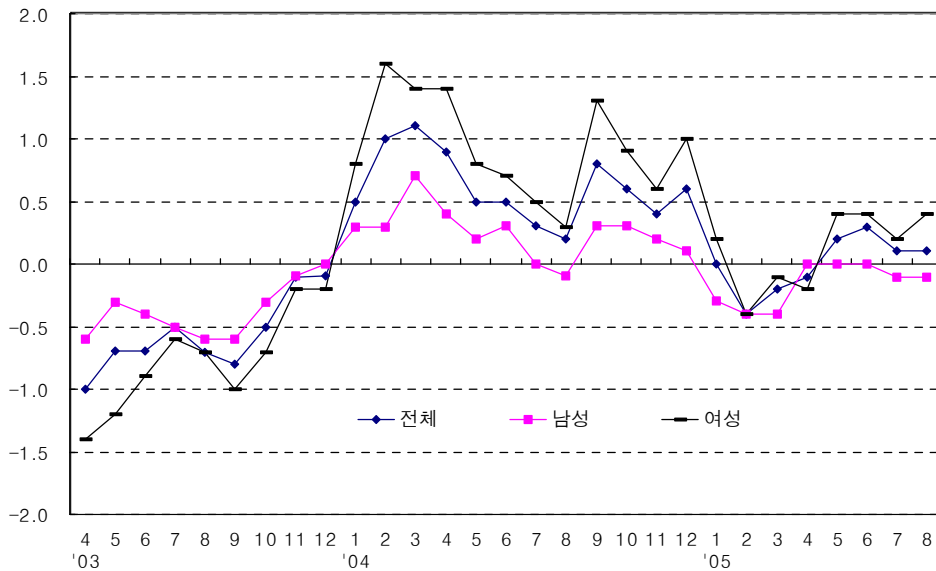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8월
경제활동인구	23,035 (2.5)	23,576 (2.1)	23,482 (1.7)	23,229 (1.3)	23,575 (1.8)	23,221 (0.8)	24,004 (1.8)	24,123 (1.8)	24,072 (1.9)	23,689 (2.0)
참가율	61.3	62.6	62.2	61.5	62.3	61.1	62.7	62.9	62.7	61.6
취업자	22,104 (2.2)	22,744 (2.0)	22,647 (1.6)	22,382 (1.2)	22,733 (1.8)	22,247 (0.6)	23,126 (1.7)	23,246 (1.9)	23,184 (1.9)	22,847 (2.1)
고용률	58.8	60.4	60.0	59.3	60.1	58.5	60.4	60.6	60.4	59.5
실업자	931	831	835	848	842	975	878	878	888	843
실업률	4.0	3.3	3.6	3.6	3.6	4.2	3.7	3.6	3.7	3.6
비경제활동인구	14,542 (-1.2)	14,097 (-0.8)	14,289 (0.0)	14,542 (0.6)	14,273 (-0.3)	14,789 (1.7)	14,271 (1.2)	14,245 (1.1)	14,331 (1.4)	14,739 (1.4)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5년 8월 고용동향』, 2005. 9.

[그림 4]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단위 : %포인트,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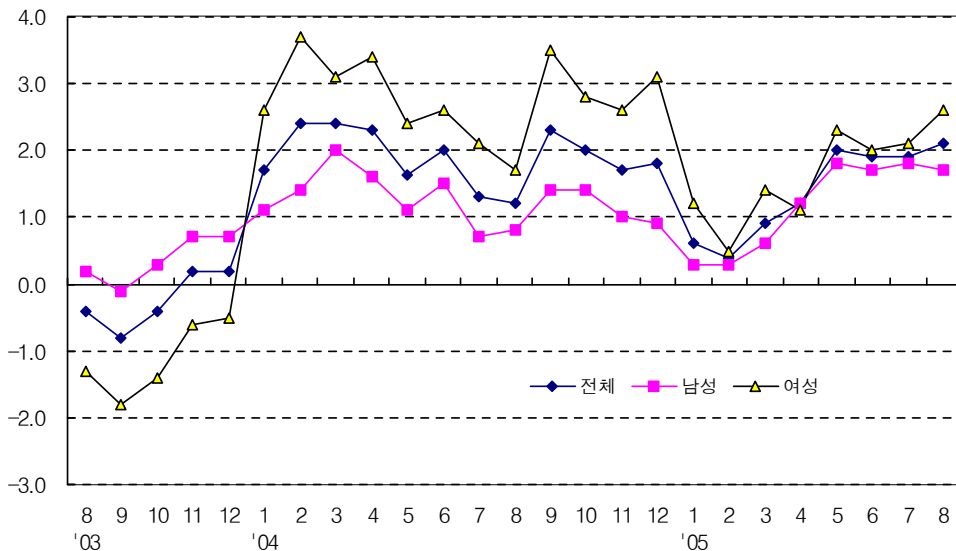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05년 8월 중 취업자는 22,8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5천명(2.1%)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취업자는 13,3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5천명(1.7%), 여성취업자는 9,51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4천명(2.6%)이 증가하여 여성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짐(그림 5 참조).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39세의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40~59세의 취업자는 증가함.
 - 2005년 2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4개월 연속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짐.
 - ※ 460천명(5월) → 424천명(6월) → 434천명(7월) → 465천명(8월)
- 2005년 8월 중 실업자는 84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0.6%)이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함.
 - 남성실업자는 550천명으로 16천명(3.0%)이 증가한 반면, 여성실업자는 292천명으로 21천명(-6.7%)이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남성이 0.1%포인트 증가한 4.0%를, 여성이 0.3%포인트 감소한 3.0%를 기록하여 여성에서의 실업률 감소가 두드러짐.
- 2005년 8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4,73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7천명(1.4%)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

동시장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는 1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명 증가로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어가며 2001년 2월(149천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
 ※ 구직단념자 추이 : 111천명(2004. 8) → 135천명(2005. 2) → 103천명(2005. 4) → 114천명(2005. 6) → 141천명(2005. 7) → 148천명(2005. 8)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

- 2005년 8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73천명, 5.7%), 건설업(69천명, 3.9%), 전기·운수·통신·금융업(66천명, 3.0%), 농림어업(18천명, 0.9%)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59천명, -1.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천명, -0.1%) 등에서는 감소함.
 - 2005년 2월 이후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짐(그림 6 참조).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고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004년 7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7월	8월
전 산업	22,104 (2.2)	22,744 (2.0)	22,647 (1.6)	22,382 (1.2)	22,733 (1.8)	22,247 (0.6)	23,126 (1.7)	23,246 (1.9)	23,184 (1.9)	22,847 (2.1)
농림어업	1,609 (-5.3)	1,967 (-7.5)	1,933 (-7.5)	1,933 (-7.0)	1,789 (-4.9)	1,525 (-5.2)	2,018 (2.5)	2,056 (3.4)	2,005 (4.2)	1,951 (0.9)
제조업	4,278 (2.6)	4,308 (1.7)	4,278 (2.7)	4,226 (2.7)	4,296 (1.2)	4,260 (-0.4)	4,257 (-1.2)	4,251 (-1.5)	4,233 (-1.8)	4,167 (-1.4)
건설업	1,762 (1.6)	1,864 (0.6)	1,790 (-1.7)	1,751 (-2.7)	1,864 (0.6)	1,692 (-4.0)	1,897 (1.8)	1,931 (3.5)	1,870 (4.7)	1,820 (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12 (-0.1)	5,866 (0.5)	5,819 (0.2)	5,737 (-0.6)	5,853 (0.0)	5,835 (-1.3)	5,796 (-1.2)	5,806 (-1.0)	5,840 (-0.8)	5,734 (-0.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6,362 (7.3)	6,542 (8.0)	6,617 (5.8)	6,538 (5.2)	6,711 (6.1)	6,714 (5.5)	6,907 (5.6)	6,950 (5.6)	6,968 (5.1)	6,911 (5.7)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163 (-0.2)	2,182 (0.2)	2,197 (2.6)	2,183 (2.4)	2,205 (2.4)	2,202 (1.8)	2,233 (2.3)	2,235 (1.9)	2,253 (2.3)	2,24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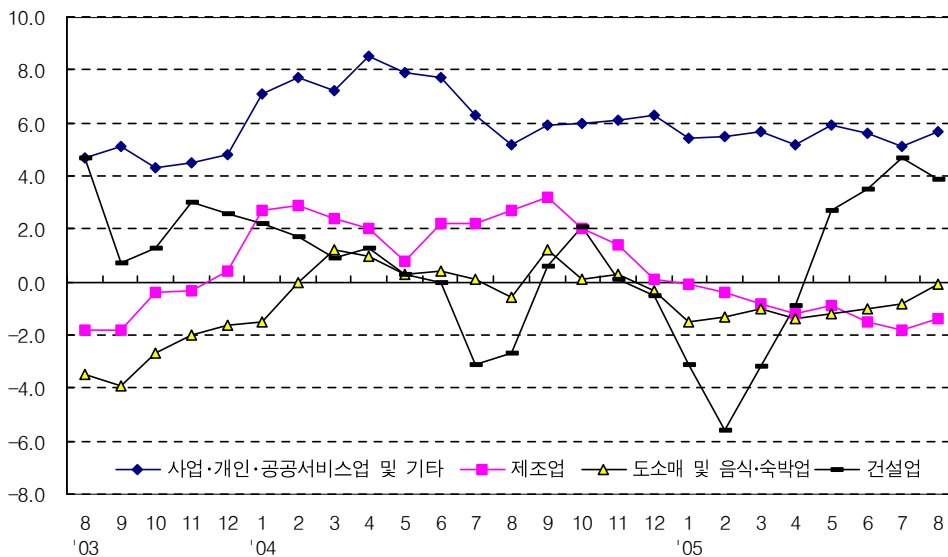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5년 8월 고용동향』, 2005. 9.

〔그림 6〕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임시·일용직,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

- 2005년 8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87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1천명(1.0%)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4,96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4천명(2.6%)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임시·일용근로자가 대폭 상승함(그림 7 참조).
 - 석달 연속 비임금근로자가 증가하였고, 이는 자영업주의 증가에서 기인함.
- 2005년 8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8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12천명(40.7%)이 대폭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8,330천명으로 766천명(4.0%)이 감소
 - 4개월 연속 40만개의 일자리 증가는 좋은 현상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용직과 전년 7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임시근로자의 증가, 그리고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증가는 체감고용사정이 그리 좋지 않음을 보여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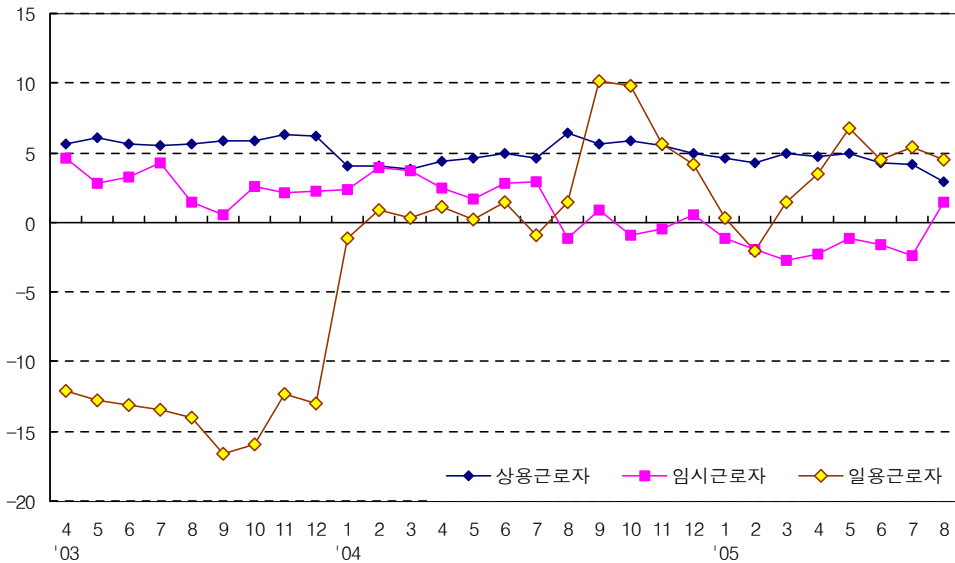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6월	7월	8월
전 체	22,104 (2.2)	22,744 (2.0)	22,647 (1.6)	22,382 (1.2)	22,733 (1.8)	22,247 (0.6)	23,126 (1.7)	23,246 (1.9)	23,184 (1.9)	22,847 (2.1)
비임금근로자	7,490 (0.3)	7,762 (-0.4)	7,769 (-2.1)	7,797 (-2.3)	7,631 (-1.5)	7,391 (-1.3)	7,772 (0.1)	7,844 (1.0)	7,812 (1.6)	7,879 (1.0)
자영업주	6,001 (2.3)	6,136 (1.9)	6,177 (0.1)	6,191 (-0.4)	6,126 (0.2)	6,022 (0.4)	6,210 (1.2)	6,261 (2.0)	6,246 (2.2)	6,302 (1.8)
무급가족 종사자	1,489 (-7.0)	1,626 (-8.2)	1,593 (-9.9)	1,606 (-8.9)	1,505 (-8.0)	1,368 (-8.1)	1,562 (-3.9)	1,583 (-2.5)	1,566 (-0.7)	1,577 (-1.8)
임금근로자	14,614 (3.2)	14,983 (3.3)	14,878 (3.6)	14,584 (3.1)	15,102 (3.6)	14,856 (1.7)	15,354 (2.5)	15,401 (2.3)	15,372 (2.1)	14,968 (2.6)
상용근로자	7,460 (4.0)	7,586 (4.6)	7,671 (5.5)	7,700 (6.4)	7,781 (5.4)	7,803 (4.9)	7,936 (4.6)	7,931 (4.3)	7,889 (4.2)	7,926 (2.9)
임시근로자	5,067 (3.3)	5,199 (2.3)	5,035 (0.9)	4,813 (-1.2)	5,026 (-0.3)	4,968 (-2.0)	5,112 (-1.7)	5,144 (-1.6)	5,173 (-2.4)	4,879 (1.4)
일용근로자	2,087 (0.0)	2,197 (0.9)	2,172 (3.5)	2,071 (1.5)	2,295 (6.5)	2,085 (-0.1)	2,306 (4.9)	2,326 (4.5)	2,310 (5.4)	2,164 (4.5)
36시간 미만	2,587 (0.8)	2,509 (27.9)	2,687 (-10.0)	2,734 (-28.5)	2,501 (5.5)	2,757 (6.7)	2,411 (-3.6)	2,326 (0.7)	2,638 (-8.6)	3,846 (40.7)
36시간 이상	19,125 (0.8)	20,004 (-0.8)	19,563 (3.6)	19,096 (8.5)	20,000 (1.4)	18,783 (-1.8)	20,473 (2.3)	20,666 (2.0)	20,232 (3.9)	18,330 (-4.0)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5년 8월 고용동향』, 2005. 9.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40대 실업률 감소

- 2005년 8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4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
 - 2005년 8월 중 실업자는 40대 이하에서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청년층(19~29세)에서의 실업자 감소(354천명, 7.4%)가 두드러짐(그림 8 참조).
 - 교육정도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중졸 이하 8천명(2.5%, -0.1%포인트), 대졸 이상 9천명(3.3% -0.3%포인트)이 감소한 반면, 고졸에서 12천명(4.4%, 0.1%포인트) 증가함.
- 2005년 8월 중 전체 실업자 843천명을 전직유무별로 보면 신규실업자는 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 증가하였으나 전직실업자는 817천명으로 7천명 감소
 - 전직실업자 중 이직한지 1년이 안된 실업자는 67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명(-3.7%)이 감소하였으나, 이직한지 1년 이상 된 전직실업자는 141천명으로 19천명(15.1%)이 증가함.

〈표 5〉 연령별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6월	7월	8월
전 체	931(4.0)	831(3.5)	835(3.6)	848(3.6)	842(3.6)	975(4.2)	878(3.7)	878(3.6)	888(3.7)	843(3.6)
15~29세	472(9.3)	402(8.1)	374(7.5)	370(7.6)	400(8.1)	448(9.0)	377(7.8)	376(7.8)	416(8.3)	354(7.4)
30~39세	193(3.0)	186(2.9)	204(3.2)	208(3.3)	201(3.2)	224(3.6)	200(3.2)	191(3.0)	181(2.9)	206(3.3)
40~49세	159(2.5)	138(2.2)	152(2.4)	162(2.6)	141(2.2)	182(2.9)	165(2.5)	167(2.5)	164(2.5)	159(2.5)
50~59세	79(2.4)	77(2.2)	78(2.3)	80(2.4)	78(2.2)	94(2.7)	94(2.5)	96(2.5)	90(2.4)	97(2.6)
60세이상	28(1.4)	29(1.2)	27(1.2)	28(1.2)	23(1.0)	23(1.3)	42(1.6)	48(1.8)	37(1.5)	28(1.1)
중졸이하	155(2.7)	141(2.3)	153(2.6)	154(2.6)	144(2.4)	169(3.1)	161(2.7)	164(2.7)	151(2.5)	146(2.5)
고 졸	495(4.9)	423(4.2)	443(4.3)	434(4.3)	478(4.7)	528(5.2)	444(4.3)	460(4.5)	492(4.7)	446(4.4)
대졸이상	280(3.9)	268(3.6)	239(3.3)	260(3.6)	220(3.0)	277(3.7)	273(3.5)	254(3.3)	245(3.2)	251(3.3)
신규실업자	86	52	32	24	40	60	41	36	48	26
전직실업자	845	779	803	824	803	915	837	841	840	817
1년 이상	158	141	129	123	144	175	179	183	173	141
1년 미만	687	638	674	701	659	740	658	658	667	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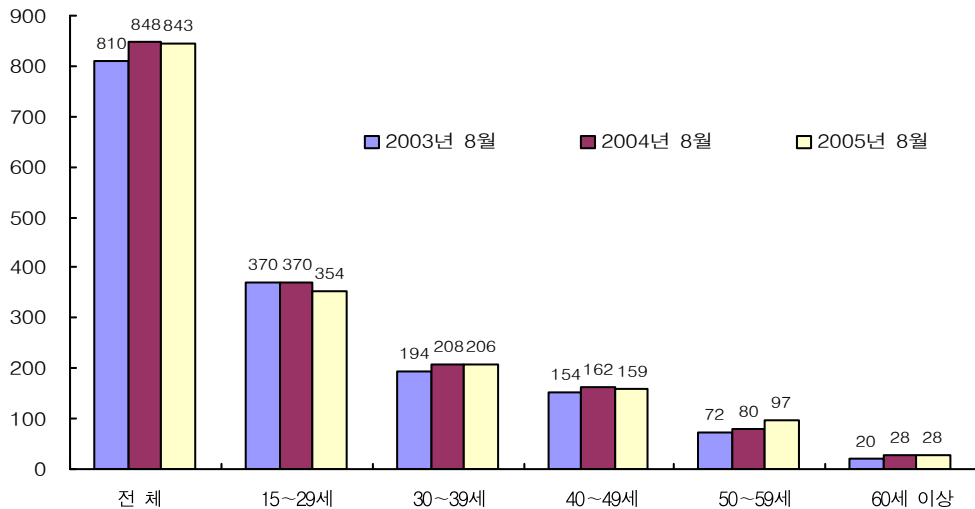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5년 8월 고용동향』, 2005. 9.

〔그림 8〕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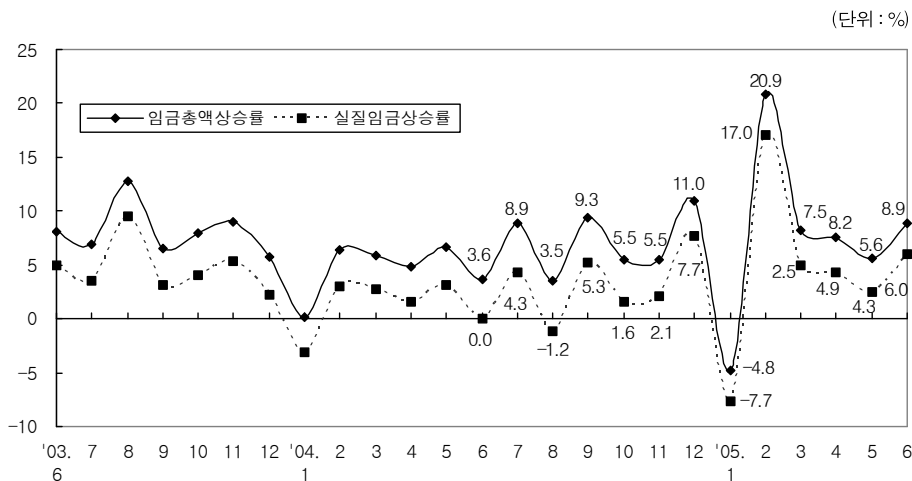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임금 동향

◆ 2005년 6월 임금상승률, 전년보다 5.3%포인트 높아

- 2005년 6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446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9% 상승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3.6%보다 5.3%포인트 높은 수치임.
 - 1~6월(상반기) 임금총액은 2,31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4% 상승
 - 2005년 6월 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정액급여 상승률은 전년보다 상승한 반면,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 상승률이 각각 10.0% 및 12.9%로 대폭 상승하였고, 산업별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과 제조업 등에서 높은 임금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 등이 주요 원인임.
- 실질임금은 6.0% 상승
 - 2005년 6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6.0% 상승함.
 - 1~6월(상반기)의 실질임금은 1월 실질임금이 7.7% 하락한 영향이 지속되어 임금총액 상승률보다는 낮은 4.2%의 상승률을 기록

[그림 9] 임금상승률 추이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원/월, 2000=100.0,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1~6월	
		5월	6월							
임 금 총 액	2,255 (6.0)	2,185 (3.9)	2,115 (5.0)	2,324 (7.3)	2,399 (7.7)	2,348 (7.5)	2,272 (7.4)	2101 (5.6)	2,446 (8.9)	2,310 (7.4)
정 액 급 여	1,636 (6.8)	1,599 (7.0)	1,613 (6.6)	1,643 (6.9)	1,690 (6.7)	1,726 (8.0)	1,734 (7.6)	1735 (7.4)	1,747 (7.5)	1,730 (7.8)
초 과 급 여	137 (1.7)	132 (3.1)	138 (2.5)	137 (2.5)	143 (-1.0)	142 (7.8)	151 (8.9)	151 (6.6)	150 (10.0)	146 (8.4)
특 별 급 여	482 (4.6)	455 (-5.4)	364 (-0.5)	544 (9.8)	566 (13.3)	480 (5.7)	387 (6.2)	215 (-7.3)	548 (12.9)	433 (5.9)
실 질 임 금 지 수	117.9 (2.3)	115.5 (0.6)	111.1 (1.6)	120.5 (2.9)	124.5 (4.1)	120.3 (4.2)	115.8 (4.3)	107.0 (2.5)	125.0 (6.0)	118.1 (4.2)
소 비 자 물 가 지 수	114.7 (3.6)	113.4 (3.3)	114.2 (3.3)	115.6 (4.3)	115.5 (3.4)	117.0 (3.2)	117.6 (3.0)	117.7 (3.1)	117.3 (2.7)	117.3 (3.1)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5년 8월, 협약임금 인상률 및 진도율은 전년보다 낮게 진행

- 협약임금 인상률, 전년동기보다 0.9%포인트 낮게 나타남.
 - 2005년 8월 31일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6%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5.5%보다 0.9%포인트 하락
 - 이 중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6%로 전년동기의 5.6%보다 하락하였으나 공공부문은 3.8%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2.9%에 비해 상승
 - 전년보다 낮은 협약임금 인상률은 2005년 7월 이후 주 40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전년보다 낮게 타결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임금교섭은 전년보다 느리게 진행 중
 - 2005년 8월 31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228개소 중 2,719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전년동기(49.1%)보다 낮은 43.7%의 진도율을 기록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44.4%로 6,024개소 중 2,676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204개소 중 43개소가 타결되어 21.1%의 진도율을 기록

〈표 7〉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5년 8월 31일 현재)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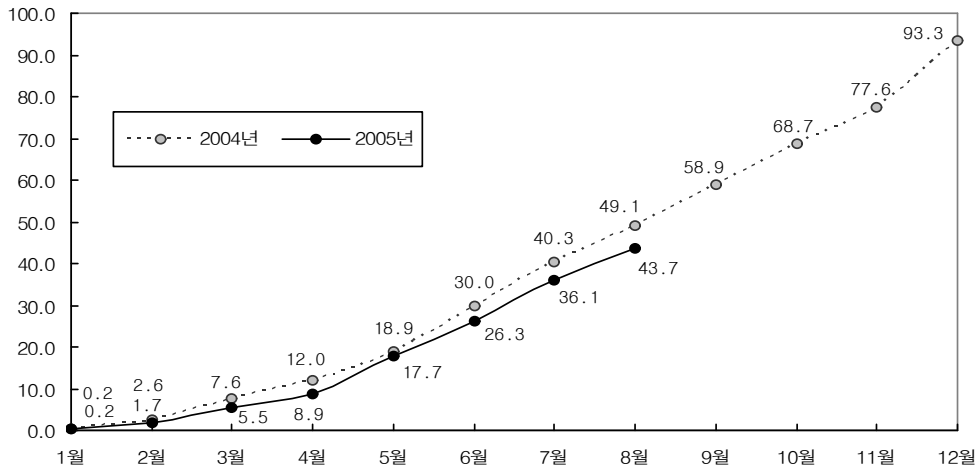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6,228 (5,909)	2,719 (2,900)	43.7 (49.1)	4.6 (5.5)
민간부문	6,024 (5,727)	2,676 (2,847)	44.4 (49.7)	4.6 (5.6)
공공부문	204 (182)	43 (53)	21.1 (29.1)	3.8 (2.9)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10〕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4, 2005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